

기사회생... 경영 정상화 기대

새 경영진 영입한 불교TV 향방

악성부채 해결등 운영자금 마련 '숨통' '범종단 관심가져야 공영·투명성 가능'



◇22일 불교TV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허문도씨.

입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입장

불교TV노조(위원장 신동우)는 허문도씨의 사장 선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허문도씨의 사장 선임은 경영난 타개의 제1조건인 자금문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허문도씨가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되고 조계종이 경영 정상화에 각별한 관심을 표출함에 따라 불교TV는 '기사회생'의 단초를 마련했다.

허문도씨의 사장 선임은 경영난 타개의 제1조건인 자금문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영의 변화

불교TV는 이 두 호재를 배경으로 '급한 불'을 먼저 끄며 경영 정상화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로 이관되면서 신용불량 적색거래회사로 분류돼 있다.

이와관련 불교TV 안팎에서는 허문도 사장의 재정지원자로 알려진 정계식(경국대대표이사)씨가 일정량의 자금을 풀어 긴급 수혈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0대의 기업인 정씨는 제3 금융권인 한국엔젠투자와 10여개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등 부산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불교TV의 최대 주주인 태웅스님이 주식의결권을 새 경영진에게 위

오겠지만 경영정상화를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btn특위 반응

조계종 btn특위 위원장 정후스님은 허문도 사장의 선임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후스님은 허사장의 이러한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불교TV 정상화에 대한 중대한 관심과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조계종은 btn특위를 계속 가동하며 새 경영진의 행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수행환경 훼손 불보듯

'건축법 8조 4항' 폐지와 불교계 영향

사유지 건축규제 불가능 식당등 무분별 건립예상

건축법 8조4항을 폐지하자 사찰 주변에 대형음식점등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사찰의 수행환경 침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직지사 산문과 바로 접한 지역이 직지사 일주문 안쪽과 바로 옆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김천시에 요청했다.

일주문 안과 바로 옆에 대형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수행처로서의 직지사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릴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대될 소지가 많다. 개정 전 건축법 8조4항에 근거해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사찰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이 훼손되거나 문화재보호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건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규제할 수 있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사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20조, 즉 보물 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백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뿐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 8조4항을 되살리는 제개정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구역 경계의 확대 △전통사찰보존법의 경내지 범위 확대(현재는 사할 소유 토지를 경내지로 규정하고 있다) 등 대체입법안이 대안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포교 소극적” 40% 응답

조계종 '포교의식 조사' 설문분석

남자는 참선-여자는 염불 선호 "계층별 포교방법론 개발해야"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양)이 21일 발표한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는 단순한 현황 파악이 아닌 포교의 주체와 대상의 의식을 직접 점검하고자 한 전국적인 규모의 기초통계 조사였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다른 의의적인 조사사업이었다.

이른바 '적극적인 불자'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98년 결집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불교신도 가운데 약 21%에 해당하는 정기적 신도층의 실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불자들 가운데 68.6%가, 불교교육 경험자는 80.2%가 자율적인 동기로 입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불자들이 타인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불교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 의존도가 높고 신심도 깊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호하는 수행은 법회참석(22.3%) 염불(21.5%) 절하기(15.6%) 참선(14.4%) 독경(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교활동 평가

설문에 응한 일반불자들이 불교포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교포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불교포교가 수감하는 남성은 39.8%를 나타내고 있어 불교포교대학 등 불교교육기관이 남성 불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성별특성

설문에 응한 일반불자들이 불교포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교포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불교포교가 수감하는 남성은 39.8%를 나타내고 있어 불교포교대학 등 불교교육기관이 남성 불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수준

조사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12.6%, 고졸 48.3%, 초대졸 이상 36.5%

로 나타나 불교신자는 지적력층이 많다. 일반의 시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 포교사의 경우 고졸이하 27%, 대졸은 57.4%, 대학원졸 이상은 15.6%로 나타나 고학력층이 집결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문제와 대책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는 방법론의 개발과 신도 지도이론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교가 보유한 문화와 문화재 등 포교 지면을 심분 활용한 포교활동과 대면 권유활동 등을 비롯한 각종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남성 불자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인 불교대학의 신설을 적극 유도하는 등 신도교육기관의 확대와 회사원, 학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부여가 절실하다. ▲신도들의 수계절차와 교육체계를 중단적으로 통일해야 할 과제도 안겨 왔다.



◇선호하는 수행



◇중단 포교활동이 소극적인 이유 (포교사의 시각)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러가지 잣대가 있다. 조화로운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잣대이지만 이는 이상일뿐 실제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다.

통계적인 평균을 정상이라고 보는 잣대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잣대는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끼고 있다면 평균적 개념으로는 정상범위일지는 모르지만 조화로운 건강의 개념으로 본다면 모순을 갖고 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성장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 걸맞은 행동과 사고는 정상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길게 늘어놓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무엇이나 결과에만 치중하여 과정의 잘못이나 불법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결과만 좋으면 무엇이든 양해되는, 아니면 오히려 돋보이는 잘못된 관행 속에 오래 살아온 덕분이

다. 과정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실형 남이 보기엔 결과와 올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올바른 결과가 아니라 옳지 않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위장될 뿐이다.

아프리카의 남아연방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청소년세계축구대회에서 일본의 결승진출을 놓고 이번이 일어났다고 난리다. 2002년의 월드컵을 주최하는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출전하여 한국은 예선에서 탈락하고 일본은 결승행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양국간의 축구 발전에 쏟은 과정을 한번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의 불문도 아니

지만 더욱이 일본의 기적도 아니다. 어떤 과정을 밟더라도 결과만 좋다면 하고 싶어붙이는 관행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지난번 몇몇의 보물선거에서도 일단 되고 보자는 불법적 행태가 바로 그런 관행의 일부다. 올바른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랜 관행이 불건강한 개인과 비정상적인 사회를 낳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개혁은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나가고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근후(본지논설위원·이화대 교수)



바른 잣대

송광사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움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효종, 구산, 일각선사로 이어지는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牧牛家風을 계승해 왔으며, 20여년 전부터 불일국제선원을 개설하고, 하계수련회를 매년 개최, 국내외에 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 모든 정진과 불사는 先師스님들의 加護와 叢林大衆의 如法한 精進, 그리고 전국 불일회원과 사부대중이 수회 동참한 원력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에 기묘년 三月佛事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동행하고, 보살계 수계산림과 人天의 무루 복진인 가사불사 회향식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과 전국 불일회원은 물론, 뜻 있는 모든 불자들의 수회동참을 거듭 바라면서 이 인연 功德으로 다 같이 복제가 구축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법회안내

1. 일시 : 불기 2543(1999)년 5월 10일(음. 3월 25일) ~ 5월 12일(음. 3월 27일) 3일간
 - ①음. 3월 25일(5월 10일) 오후 7시 보살계 입재
오후 8시 보살계 심지법문
 - ②음. 3월 26일(5월 11일) 오전 7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전 10시 4차 가사불사 회향
오후 1시 전국불일회 임원총회
오후 2시 보살계 계율설법(법문)
오후 7시 전국불일회 정기총회
 - ③음. 3월 27일(5월 12일) 오전 7시 보살계 수계의식
오전 9시 법성도 요잡의식
오전 10시 789회 보조국사 종재 봉행

- 3.동참방법 : 삼월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이나, 가사불사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송광사 종무소와 아래 명기된 연락처에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연 락 처 : ①본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 광 사
종무소/전화 0661)755-0107, 0108, 0109 전송 0661)755-0408
②지역 : ·서울분원 법편사 02)733-5322 ·광주분원 원각사(062)223-3168
·대구분원 관음사 053)421-3700 ·순천분원 대승사 0661)744-4902
·부산분원 관음사 051)205-0069 ·부산분원 보덕사 051)518-7790
·여수분원 보현사 0662)662-5145 ·광양분원 보광사 0667)763-1192
·송광사 각 말사 암 ·각 지역 불일회
- 5.동 참 금 : ①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금 30,000원 ②영가친도 동참금 10,000원
③가사불사:한가족 한벌 동참금 300,000원

온라인 번호

- ① 농 협 615107-51-008814(예금주 송광사)
- ② 우체국 501676-0014699(예금주 송광사)
- ③ 국민은행 551-01-0470-485(예금주 송광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540-930)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조계종림

송 광 사 주지 현 지 합장